주민 보호를 받는 마을 자랑의 소나무

지정번호	제천-77
지정년도	2003
관리기관	제천
수령	610년
수고	13m
흉고둘레	4.5m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832-1
37˚09′02.89″N
128˚15′08.40″E

마을의 들머리에 있는 보호수(제천-77) 소나무는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는 길옆에서 수문장처럼 서서 잘 자라고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61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무나이는 이 마을에서 전하는 왕박산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추정된 듯하다. 즉 고려왕조의 패망과 함께 왕족이 이곳으로 피신하여 살면서 심은 나무로 여기는 것이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 둘레는 4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가량이다. 원줄기 1.5m 높이에서 가지가 3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로 갈라졌다. 전체적으로는 부채모양을 하고 있다. 소나무는 오랜 세월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제천시가 자랑하는 나무 중의 하나이다. 생육상태도 좋은 편이다. 나무와 관련하여 전승하는 그럴듯한 기록이나 전설은 찾기가 쉽지 않다. 관련하여 마을에서 잘 전하는 이야기는 왕박산 전설 정도이다. 무도리의 서문마을에 들어서려면 마을 동쪽을 둘러싼 낮은 산을 바라보아야 한다. 고려 패망의 역사를 담은 왕박산이다. 이곳으로 피신한 고려 왕족은 성을 박씨로 고치고 숨어 살았다. 왕족이 박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하여 왕박씨라 하였고, 그 뒷산을 왕박산이라 불렀다. 여기에서 왕박시루의 지명도 유래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추강 남효온(1454~1492)의 추강냉화秋江冷話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소나무에 대한 마을 주민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는 석비에 새긴 설명으로 알 수 있다. 마을에서는 이 소나무를 서낭당으로 모시면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 밤에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마을의 평안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서낭제를 정성껏 올리고 있다. 또한 석비는 주민 모두 이 소나무를 영원히 보호하는데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다. 소나무를 사랑하는 마을 주민의 정성이 느껴진다. 마을 주민이석비에 쓴 소나무 찬가도 눈길을 끈다. 소나무 아래에는 성황신위城隍神位라 쓰인 돌 비석이 있다.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은 마을 주민과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행인의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